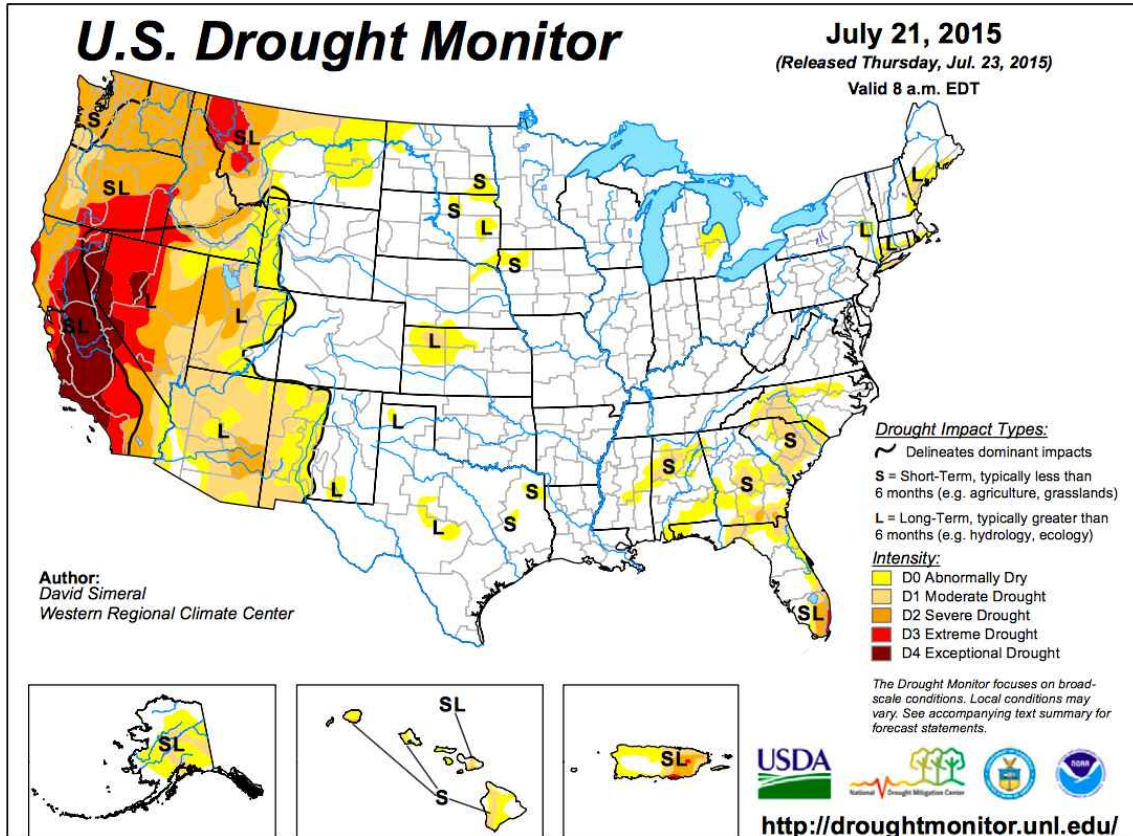


7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0)

□ 미국 기후 현황(7/19~7/25)



2달 전 홍수 피해를 겪었던 남부와 중부 일대의 작물들이 현재는 강한 햇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캔사스 남부, 오클라호마 북부 등 중부 평원지역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100°F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고 있다. 남부와 서부 옥수수 지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미주리와 일리노이 남부 지역에서도 1~2인치 정도의 비가 내렸다.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였다. 미시시피 델타에서부터 조지아,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는 평년보다 5°F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다. 대서양 남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더위를 식혀주었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내륙 산간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리는 등 시원한 날씨가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허리케인 돌로레스(Dolores)가 소멸되고 남은 비구름으로 인해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7/20~7/26)

대륙 전역에 걸쳐 평년수준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오클라오마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옥수수 지대와 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대평원과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6°F이상 기온이 낮은 날도 있었다. 하지만, 남동부와 대평원 남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다.

■ 옥수수

7월 26일 기준 출사기(silking stage)가 끝난 지역의 비율은 약 78%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p 앞서고 있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약간 앞선 상황이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출사기에 이른 비율이 35%p 이상 증가했다. 호숙기(dough stage)에 도달한 비율은 14%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p 낮은 상황이다. 18개 주요 옥수수 재배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호숙기에 이른 면적 비율이 직전 5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이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5%p 낮은 수준이다.

■ 겨울밀

7월 26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8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3%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5%p 앞선 상황이다.

■ 면화

7월 26일까지 총 재배지의 85%에 해당하는 지역이 스퀘어링 단계(squaring stage)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2%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p 뒤쳐진 상황이다. 델타(Delta)에서는 스퀘어링 단계를 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44%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3%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5%p 뒤쳐진 상황이다. 텍사스 남부 일대에서는 면화송이가 벌어진 곳도 있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7%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와는 동일한 수준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p 높은 수준이다.

■ 쌀

7월 26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51%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0%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10%p 앞선 상황이다. 루이지애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출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3%p 낮은 수준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2%p 낮은 상황이다.



□ 세계 기후 현황(7/19~7/25)

■ 유럽: 남동부와 남부 지역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중부, 이탈리아 북부, 발칸 남부 등 주요 곡창지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1°C까지 오르기도 했다. 스페인 북부의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6°C까지 올라 옥수수 재배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프랑스 남부에서도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3~30mm) 주 초반에는 낮 최고기온이 33~37°C까지 올랐다. 이탈리아 북부도 상황이 비슷한데, 지난 10일 간 낮 기온이 36°C이상 올랐고, 7월 2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9°C를 기록하기도 했다. 헝가리에서도 낮 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으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영국과 독일, 폴란드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중부와 북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남부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중부, 우크라이나 북부에서는 10~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역인 중부와 북부 일대에는 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 남부에서는 35~38°C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와 달리 우크라이나 남부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밀의 건조 및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최근의 가뭄을 다소 해소해 주었다. Heilongjiang, Jilin, Liaoning 서부 지역과 내몽고 일대에서는 10~4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지난 한 달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일대의 기온은 평년보다 1~2°C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작물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북동부 평원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한 주간 내린 비의 양도 25mm 미만을 기록했다. Yangtze 계곡 일대에서는 장마의 영향으로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태풍 하롤라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50 노트(knots) 이하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장마의 영향으로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지만, 남한의 경우 비가 더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호주: 서부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2~25mm의 비가 내렸지만, 이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의 밀 재배지역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호주 지역과 빅토리아 북부에서는 5~10mm내외의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 등 밀 재배지역에서는 10~25mm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 두 지역의 경우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뭄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자주 내린 비로 인해 작물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상태이다. 호주 동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C 높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수준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La Pampa와 Buenos Aires 북부에서는 강우량이 10mm 미만 수준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서부와 남부 곡창지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북동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상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주 초반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Santiago del Estero 등 북부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영하 4°C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4%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72%보다 12%p 앞선 상황이고, 밀의 경우 수확률이 8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p 앞섰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강한 비가 내렸지만 지난 주 내린 비의 양보다는 적었다. Rio Grande do sul의 곡창지대에서는 50~100mm의 비가 내렸지만, Parana 등에서는 이보다 적은 비가 내렸다. 이 지역들의 경우, 작물의 생육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Parana의 밀 지배지역의 개화기에 도달한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중부 내륙의 밀 재배지역인 Mato Grosso와 Bahia 남부에서는 낮 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는 등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50mm의 비가 내렸다.